

# 국민여러분→보좌관→지정생존자, 정치극 붓물터진 이유



최근 정치를 소재로한 작품들이 붓물터지듯 만들어지고 있다. (왼쪽) '국민여러분!' (가운데) '보좌관' (오른쪽) '보스를 국회의원으로'

## 작가·제작진 새 소재 발굴하는데 한계 느껴

논란만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를 소재로했던 작품들이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것도 한몫했다.

2015년 국회를 배경으로 한 KBS2 '어셈블리'는 6%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2010년 최수종이 대통령으로 등장했던 KBS2 '프레지던트'도 당시로서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09년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시티홀'은 가상의 인주시를 배경으로 시장과 시의회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다. 물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김 작가 역시 '시티홀'을 마친 후 "앞으로는 더 쉬운 작품을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소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종영한 KBS2 '국민여러분'은 사기꾼 양정국(최시원)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일

개봉하는 영화 '토리브더킹: 목포 영웅'도 거대조직 보스 장세출(김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야기다.

14일부터는 JTBC 금토극 '보좌관'이 진파를 탄다. 재복처럼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리얼 정치 플레이어들의 위험한 도박, 권력의 정점을 향한 슈퍼 보좌관 정태준(이정재)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린 작정이다.

국회의원 출신 위대한(송승헌)이 문제부상이 4남매를 받아들이고, 국회 제임성을 위해 쇼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tvN '위대한 쇼'는 촬영에 한창이다. 또 tvN '80일, 지정생존자'도 다음달 1일부터 방송된다. 갑작스러운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로 대통령을 잃은 대한민국에서 환경부장관 박무진(지진희)이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되면서 테러의 배후를 찾아내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성장하는 이야기다.

이같이 정치 드라마가 쏟아져 나

오고 있는 것은 역시 작가나 제작진이 새 소재를 발굴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멜로 장르의 최근 들어 무드러지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단순 멜로뿐만 아니라 한 때 인기를 모았던 판타지물까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창작자들의 관심권 밖에 있던 정치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정치 드라마라고 무조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다루는 것은 실패확률이 높다. '지정생존자'처럼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세우거나 '보좌관'처럼 국회의원 뒤에서 활약하는 보좌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정치라는 소재가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연이여 개봉하고 공개되는 작품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정치가 얼마만큼 활용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트와이스, 8싱글 4·5집 음원 선공개 후 차트 1·2위 석권

트와이스가 다음달 일본서 발매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싱글이 음원 선공개 후 현지 라인뮤직 차트 1,2위를 석권했다.

트와이스가 12일 일본 네 번째 싱글 'HAPPY HAPPY(해피 해피)'와 싱글 5집 'Breakthrough(브레이크 스루)'의 각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선공개한 가운데 현지 라인뮤직 'TOP100' 실시간 차트 1, 2위에 올라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7월 일본 데뷔 2주년을 맞이하는 트와이스는 7월 17일 싱글 4집 'HAPPY HAPPY', 24일 싱글 5집

'Breakthrough'를 발매하는 이례적 프로모션으로 현지 팬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해외 아티스트가 현지서 2주 연속 싱글을 공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로, 트와이스는 상반된 매력이 담긴 두 싱글을 통해 팬들에게 두 배의 매력을 전한다.

트와이스의 일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두 싱글의 뮤직비디오는 각각 해와 달이라는 서로 다른 '빛'을 표현하며 반전미를 강조했다. 'HAPPY HAPPY'에는 컬러풀한 세계 속 아홉 멤버들의 러블리한 모

습을 담았고, 'Breakthrough'는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강렬한 안무와 가리쓰마가 돋보이는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멤버 채영은 'HAPPY HAPPY' MV에 등장하는 멤버별 9인 9색 과일 일러스트를 직접 그려 남다른 재능을 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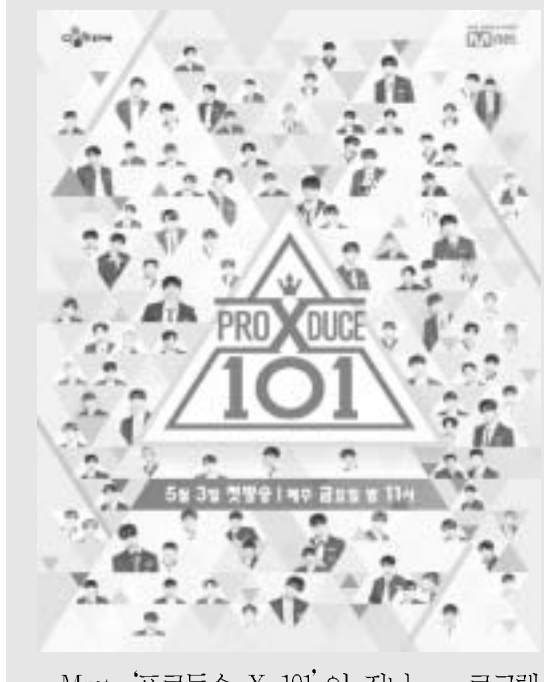
해당 곡은 일본 코카콜라의 과일 음료 브랜드 'Coco(쿠우)'의 CF송으로 채택되며 현지 인기몰이를 예고한 바 있다.

현지 데뷔 후 8연속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트와이스는 싱글 4집



트와이스는 2017년 6월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TWICE'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첫 싱글 'One More Time(원 모어 타임)', 2018년 2월 싱글 2집 'Candy Pop(캔디 팝)'으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3연속 플래티넘 인증, 같은 해 5월 공개한 싱글 3집 'Wake Me Up(웨이 크 미 업)'으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싱글 중 최초로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 '프로듀스X101', 유튜브 클립 누적 조회수 1억뷰 돌파



7일, 방송의 절반을 마쳤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연습생들이 매 회 폭발성 장하고 있어 초대판 글로벌 별 아이돌 그룹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프로듀스 X 101'은 글로벌로의 확산과 끝없는 가능성을 지닌 연습생들을 포용하는 'X'를 담고 출발했다. 이에 글로벌 연습생들과 상대적으로 데뷔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개인 연습생들을 늘렸고, 나이가 어리거나 트레이닝 기간이 짧지만 숨은 재능을 지닌 연습생들에게도 지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연습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프로듀서(이하

국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아이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풋풋한 모습의 연습생부터 소위 완성형 연습생까지 다채로운 매력의 연습생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국프들도 매주 성장해 나가는 연습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연습생들과 비슷하게 꿈을 안고 나아가고 있는 10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10대 여자 시청률은 첫 방송 이래 계속 1등을 기록하며 2.7%에서 5.5%까지 수치상상했다. OTT를 통한 시청에 익숙한 10대에서 이처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꿈에 포커스를 맞춘 제작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습생, 그리고 자신의 꿈과 닮아 있는 연습생

들을 응원하는 국프들의 마음이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콘텐츠영향력지수(CPI)의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과 화제 되는 프로그램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 TV화제성 비드라마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9년도 비드라마 부문을 모두 통틀어 가장 높은 화제성을 기록한 것이며,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TOP10에도 연습생들의 이름이 가득 올라가 인기를 실감케 한다.

유튜브 Mnet K-POP 채널에 업로드된 '프로듀스 X 101' 클립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1억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티빙의 순방문자 역시 6회차까지 누적 129만여 명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앞으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국프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트레이너들은 "방송이 무르익

으면서 연습생들이 숨어 있던 재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며 "보석 같은 연습생들이 국프님들의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지션 평가의 직캠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각부상하는 연습생들이 굳건할 것만 같은 김유하, 김우석 연습생 등의 이름을 넣어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포지션 평가의 나머지 무대가 공개, 연습생들이 써내려 갈 역대급 무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차 순위발표에서 백만 표를 넘어선 연습생이 세 명이나 나온 가운데 포지션 평가 후 오직 30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2차 순위발표까지 국프들의 투표수를 끌어모을 연습생은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Mnet(엠넷) '프로듀스 X 101'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아울러 9월 발표할 첫 정규앨범 'BXZ' 역시 플래티넘 인증을 얻었으며 올해 3월 6일 공개된 앨범 '#TWICE2' 역시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석권 및 통산 3번째 위클리 앨범차트 정상, 일본 데뷔 후 최초로 발매 첫 주 오리콘 20만 포인트를 넘어 첫주 신기록 수립 등의 특보적인 인기와 기록을 쌓았다.

한편 트와이스는 올해 K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 3개 도시, 5회 공연에 22만 관객을 동원한 돌투어를 성료했다. 지난달 25일, 26일에는 2019년 월드투어 'TWICE WORLD TOUR 2019 TWICELIGHTS(트와이스 월드투어 2019 TWICELIGHTS)'의 첫 개최지인 서울 KSPD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월드투어의 성공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5일 방콕 공연에 나서는 트와이스의 2019 월드투어는 북남미 4개 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9개 도시, 10회 공연으로 화려하게 개최된다.

### 오늘의 순세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음력 5월 11일)

<p>▶<b>쥐</b> 1, 7, 11월생 매매견이 늦어져 금전 지출 늘어날 듯. 7, 11월생은 겁이 없는 강해보이지만 속마음이 여린 탓에 손해를 보고도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구나. 가전, 자동차, 귀금속, 컴퓨터 계통 종사자 길한 날. 북, 동쪽의 유혹을 조심할 것.</p>	<p>▶<b>돼지</b> 6, 12, 12월생 소, 토끼, 개미가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겠다. 10, 11, 12월생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든 시기니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 대화하면서 서로 간 마음이 통하는 날. 바르고 솔직한 대응이 지름길. 검은색이 길.</p>	<p>▶<b>원숭이</b>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이나 7, 8, 9월생은 북쪽에서 온 10, 11, 12월생의 질문에 노코멘트 대응함이 자신을 지는 길이다. 7, 8, 12월생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면 구설이 오겠으니 오늘은 조용한 자세를 유지할 것.</p>
<p>▶<b>사슴</b>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애정도 사임도 하나하나 고달프기만 하다. 3, 4, 10월생 혼자서 애는 심정 하늘이나 알까 그 누가 알아주랴. 7, 11, 12월생 애써 도움주고 성급한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에서 오해 받을 수. 빨간색으로 힘을 내라.</p>	<p>▶<b>뱀</b> 부모와 자녀로 신경 쓸 일이 있으니 1, 4, 9월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되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순리대로 행하라. 10, 11, 12월생 착실하게 대응하면 복잡한 일도 일소할 수 있다.</p>	<p>▶<b>말</b> 사정에 따라 불행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5, 8, 9월생은 화절하지 마라. 동업은 그만두고 새 길을 찾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11, 12월생은 금전적 타격이 예상보다 크겠으나 자립하면 곧 회복되는 격.</p>
<p>▶<b>호랑이</b> 애정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으니 10, 11, 12월생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 것. 1, 3, 8월생은 순간의 옳히는 성질이 주변사람을 불안하게 하니 자기수양에 힘써 자제하도록 노력하라.</p>	<p>▶<b>양</b> 분위기에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이성인이 따른다. 남자는 패기만만한 자신감이 일에도 반영되어 성과가 좋으나 7, 8, 12월생은 여자문제로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 7, 11월생 가전, 귀금속, 금융 계통 종사자는 실적 올리는 날.</p>	<p>▶<b>개</b> 큰돈이 들어오자마자 지출이 느는 격이라 5, 7, 10, 11월생 1, 2, 12월생 금전관리를 잘하라. 오늘 마련한 목돈으로 재산이 증식된다. 방송, 언론, 무역,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공격적인 태도는 화를 부르지 마시라 방어해야 편한 하루임을 알 것.</p>
<p>▶<b>토끼</b> 벌거숭이 따르니 5, 9, 11월생 자신의 감정 잘 다스리고 인내심으로 대처하라. 이상을 좇으려하기 전에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임. 10, 11, 12월생 가정의 평화를 우선으로 하고 이상시현은 좀 더 미뤄둬야 좋겠다. 남쪽 길.</p>	<p>▶<b>염소</b> 가족 간 애타는 일이 많은 날이지만 7, 8, 12월생은 성급하게만 굴지 말고 화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2, 5, 8월생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오해가 없겠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유지함이 좋겠다.</p>	<p>▶<b>돼지</b> 상오에는 모든 일이 될 듯 안 되니 속상하겠지만 7, 8, 12월생은 봄날의 햇살처럼 뜨겁고 꾸준한 자세로 임하면 오늘 좋은 결과 얻을 듯. 미운 남이라면 꽃 소식이 들리는 날. 4, 5, 6월생 빨간 옷이 길하다. 교섭은 남쪽에서 하라.</p>